

# KIA, 시범경기 첫 승...SK에 4-1 승

선발 제이콥 터너, 5이닝 2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 역투  
SK김광현, 1회말 첫 타자 안타 이후 12명 퍼펙트 '위력'



12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19 프로야구 첫 시범경기가 열린 가운데 KIA 타이거즈가 SK 와이번스를 4대1로 이긴 뒤 KIA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시범경기 첫 승을 올렸다. KIA는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MYCAR KBO리그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 첫 날 선발 제이콥 터너의 호투와 상대의 무더기 실수에 편승해 4-1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KIA 터너와 SK 선발 김광현이 호투를 펼쳤다. 터너는 5이닝을 2피안타 2볼넷 3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했다. 김광현도 1회말 첫 타자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이후 12명을 퍼펙트로 막아내는 위력을 과시했다. 나란히 안정감을 보이며 개막 준비에 청신호를 켰다.

KIA는 5회말 1사후 이명기의 좌전안타와 한승택의 볼넷으로 첫 득점권 기회를 만들었으나 최원준이 삼진으로 물러났다. 위기를 넘긴 SK는 7회초 4번타자 로맥이 KIA 두 번째 투수 양현종을 상대로 몸쪽 낮은 직구를 걸어올려 왼쪽 담장을 넘겨 처음으로 득점을 올렸다.

SK는 7회 수비에서 무너졌다. KIA 선두타자 최형우가 좌중간이 2루타를 때려내 추격 기회를 만들었다. 나지완이 볼넷을 골라냈고 이명기는 삼진. 폭투로 2루주자가 3루를 밟았고 김주형의 3루 땅볼때 SK의 홈 악송구가 나와 동점. 이어진 1사 1,3루에서 유격수 땅볼때 유격수의 홈 악송구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김택형은 폭투로 3점짜리를 헌납하고 내려갔다. KIA는 이어진 1사 1,3루에서 황윤호의 타구를 또 다시 3루수 강승호가 킥볼하자 한 점을 얻었다. SK는 7회에만 내야수 실책 3개와 투수들의 폭투 3개로 무너졌고 KIA는 적극적인 주루를 펼쳐 4점을 얻었다.

KIA 터너에 이어 등판한 양현종은 2이닝 3피안타(1홈런) 1실점했다. 팀의 유일한 실점이었다지만 역전 덕분에 승리를 안았다. 8회는 고영창이 등판해 이닝을 퍼펙트로 막으며 오키나와 캠프의 무실점 행진을 이었다. 9회는 문경찬이 나와 1볼넷 무실점 세이브를 챙겼다.

김광현의 완벽투를 이은 하재훈은 5회 등판해 1피안타 1볼넷을 내주었으나 최고 150km짜리 볼을 뿌리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6회는 문승원이 삼자범퇴로 넘겼고 7회는 김택형이 2루타와 볼넷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다. 4실점 모두 비자책이었다. 박민호와 정영일이 무실점으로 뒤를 이었다.

## 박성현, 여자골프 세계랭킹 2주연속 1위

박성현(26)이 2주 연속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했다. 박성현은 12일(한국시간) 발표된 롤렉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6.77을 기록, 6.42인 에리아 주타누간(태국)을 0.35 차로 제치고 1위를 지켰다. 앞서 박성현은 지난 4일 약 4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를 탈환했다. 3일 싱가포르에서 끝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포인트가 반영된 결과다. 8일에는 필리핀에서 열린 더 컨트리클럽 레이디스 인비테이션에서 우승, 기량을 과시했다.



박성현은 22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리는 벅크 오브 호브 파운더스컵을 통해 시즌 2승에 도전한다. 한편 호주동포 이민지(28)는 세계 랭킹 3위, 유소연(29)과 박인비(31)는 4, 5위에 올랐다.

## '우승 이끈'곽승석·이재영, 6라운드 MVP

대한항공 곽승석과 흥국생명 이재영이 도드랍 2018~2019 V-리그 6라운드 MVP 선정됐다. 12일 한국배구연맹에 따르면 곽승석은 남자부 기자단 투표 29표 중 총 14표를 획득해 6표를 얻은 한신수(대한항공)를 따돌리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지석(대한항공)과 펠리페(KB손해보험), 타이스(삼성화재)는 각 2표씩을 받았다. 곽승석은 6경기 동안 리시브 3위를 기록하며 팀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여자부에서는 이재영이 기자단 투표에서 21표를 얻었다. 문정원(한국도로공사)은 4표, 박정아(한국도로공사), 김혜란(흥국생명), 알레나(KGC인삼공사)는 각 1표씩을 받았다. 이재영은 6경기 동안 득점 3위를 기록하는 등 3라운드에



대한항공 곽승석(왼쪽), 흥국생명 이재영

이 두 번째 라운드 MVP에 올랐다. 이재영의 활약에 힘입어 흥국생명은 2시즌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했다. 남자부 6라운드 MVP 시상식은 22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챔피언 결정 1차전에 앞서 진행된다. 여자부 시상식은 같은 장소에서 21일 챔피언 결정 1차전에서 열린다.

## 풍운아 임창용 은퇴 "지원섭섭, 야구 발전에 기여하고파"

24년 간의 프로야구 생활 끝...제2인생 시작



'창용불패' 임창용(43)이 24년 간의 프로야구 선수생활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임창용의 에이전트인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은 11일 "임창용 선수가 24년 간의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창용은 광주진흥고를 졸업하고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한 뒤 삼성라이온즈, KIA 타이거즈 등을 거치며 KBO리그 18시즌

동안 1998, 1999, 2004, 2015시즌 세이브 1위, 1999시즌 방어율 1위(2.14)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대표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2008시즌에는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에 입단, 5시즌 간 128세이브 방어율 2.09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으며 2013시즌에는 MLB 시카고 컵스에 입단해 미국 무대를 밟기도 했다. 특유의 꿈틀거리는 '뱀지구'를 더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임창용은 "막상 선수생활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하다. 갑작스럽게 은퇴를 결심하게 되어 향후의 계획은 좀 더 고민을 해볼 예정이다. 이제는 선수로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한국 야구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신 팬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 프로야구 올해 목표 관중 878만 명... '역대 최대'

KBO(총재 정운찬)가 12일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정규시즌 목표 관중 수를 밝혔다. KBO 리그 소속 10개 구단이 설정한 올 시즌 목표 관중은 878만 488명(경기당 평균 1만2196명)으로 역대 정규시즌 최대인 2017년 840만688명(경기당 평균 1만1688명)보다 4.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0개 구단 중 최대 관중(111만2068명)을 기록한 두산은 올 시즌 115만명을 목표로 세워 11년 연속 100만 관중 돌파를 노린다. LG는 올 시즌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20만명을 목표로 시즌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 우승팀 SK는 2년 연속 100만 관중을 목표로 정했고 롯데 또한 2017년 이후 2년만에 홈 관중을 100만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KIA는 90만명, 삼성 78만명, KT 75만명, 키움은 54만5488명을 목표로 시즌을 맞이한다.

## 커쇼, 불펜 피칭에 만족...개막전 한 걸음더?

클레이턴 커쇼(31·LA 다저스)가 시즌 준비에 다시 속도를 낸다. MLB닷컴은 12일(한국시간) 커쇼가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지난날 어깨 통증을 느낀 뒤 첫 불펜 피칭이다. 이날 커쇼는 20개의 공을 패스트 볼로만 던졌다. 투구를 마친 뒤 "좋은 느낌이었다. 앞으로 계속 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 허니컷 다저스 투수코치는 "훌륭했다. 다시 마운드에 오를 그를 보니 기쁘다"며 "80% 정도로 던졌는데 투구 동작은 부드러웠고, 무



리하지 않았다. 훌륭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8년 간 다저스의 개막전을 책임진 커쇼는 올해도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날 어깨 통증을 느끼면서 시즌 준비에 차질이 빚어졌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전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야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